

# “新안산선 등 12.6조 규모 13개 민자사업 연내 착공”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내년 예정사업 올해로 조기 진행  
4개 민간고속도로 요금 인하·동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13개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연내에 앞당겨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 시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기 착공 대상은 평택-익산 고속도로,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당초 2020년 이후 착공하기로 한 13개 사업이다. 관계부처 협의기간 단축, 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 조정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이었던 11개, 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사업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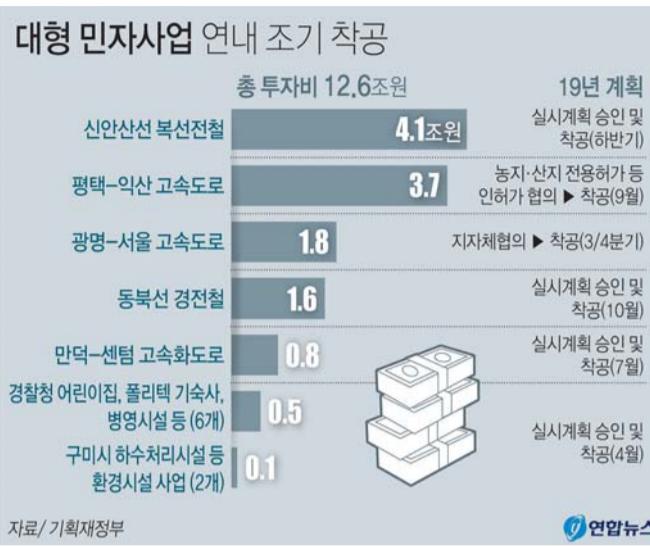
현재 53개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은 법 개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해 민간투자 대상이 아니던 영역에서 1

조5000억원 이상의 시장을 창출할 방침

이다.

홍 부총리는 “4월 중 민간사업자에 대한 산업기반 신용보증 최고 한도를 상향해 민간의 금융비용을 줄이고, 연내 민간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해 국민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범정부 민간투자 활



자료/ 기획재정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혁신적 분야로 정책 자금이 원활히 공급돼 생산적 금융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효율성 제고, 시너지 창출, 평가·환류 시스템 보강 등 3가지 측면에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 이력과 수혜 기업의 성과를 관리·분석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오는 15일 개통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자금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정책금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의 창업 전문성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스타트업에 패키지로 지원할 것”이라며 “정책금융과 민간 간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요 부처와 11개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정책금융 협의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韓-馬聯, 교역·투자 확대 FTA 추진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사전환담서 ‘상생·포용’ 목표 공유  
4차혁명 대응 미래차·ICT 등 협력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마하티르 빙 모하마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상생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 앞서 통역만을 대동한 채로 약 20분간 사전환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사전환담 때 ‘상생·포용’의 국정철학을 기반으로 한 비전 및 목표를 공유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마하티르 총리에게 ‘동방정책’이 양국간 우호협력관계에 큰 기여를 했음을 강조했다. 동방정책은 마하티르 총리가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 등과의 전략적 협력에 중점을 둔 외교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마하티르 총리의 동방정책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으로 양국민 모두가 체감 가능한 협력성과를 만들자고” 했다. 신남방정책은 우리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오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한 모습.

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두 정상은 사전환담 후 진행된 정상회담에서는 호혜적인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FTA 타당성 공동연구를 거쳐 올해 말 우리나라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타결 선언’을 노력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두 정상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미래자동차·ICT(정보통신기술)·스마트제조 등 협력

산업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한류 컨텐츠와 할랄산업의 조화로 제3국 할랄시장 공동진출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두 정상은 정상회담 종료 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증진을 위해

▲제조업 4.0 대응 ▲교통협력 ▲스마트시티 협력 ▲할랄 산업 협력 등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제조업 4.0이란, ICT 기술을 제조업 분야에 접목시켜 4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혁신 전략을 말한다. 스마트시티란, 첨단 ICT를 활용해 기반시설이 촘촘히 연결된 도시를 말한다.

/우승준 기자 dn1114@

## “도 넘은 낙하산 인사… 靑 반성해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도를 넘어서 낙하산 인사-대통령 인사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작년부터 3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이전 정부에 대해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낙하산 인사, 문재인 정부 역시 낙하산 인사는 데칼코마니처럼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루 한 명꼴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를 보면서 청와대와 집권당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논공행상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정부에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한 것은 바른미래당이 지난 5일 폭로한 ‘친문 낙하산 공공백서 2탄’과 연관이 깊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공공기관 기관장을 비롯해 상임·비상임이사 현황을 전수조사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작년 말(12월 31일 기준)까지 340개 공공기관에 총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강행됐음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알렸다. 바른미래당은 작년 9월 한차례 365명의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명단을 공개한 바다.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이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총 임원진 중 캠코더 인사의 비율은 70%를 육박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캠코더 인사 3명 중 2명이 작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임명됐다. 빠른 속도로 캠코더 인사가 증가한 셈이다. ‘캠코더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인사·여권 성향 시민단체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일컫는 말이다.

/우승준 기자

## 육군, 장비 이해못하고 총기멜빵 25만개 교체?

전술적으로 안맞아… 현재 도태중  
육군 “도입절차에 문제 없었다”

최근 육군이 신형 총기 멜빵 셀 25만개를 교체했지만, 장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전술적으로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무기체계가 아닌 전력지원물자의 개선에 인색했던 육군이 야전의 요구를 신속히 들어주었다는 점에서는 박수를 받아야 할 일이지만, 엉뚱한 결과물이 나오는 셈이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1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존의 2점식(멜빵끈)을 고

정하는 클립이 두 곳) 멜빵이 현대전에서 전술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일선 장병들의 의견을 수렴해 3점식으로 교체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육군이 새롭게 도입한 멜빵은 우리 군의 주력 개인화기인 K1·K2와 K7기관총에 부착될 제품이다. 이 멜빵은 개인화기 앞뒤의 멜빵고리와 연결되는 클립과 멜빵을 신속히 조절하는 클립으로 구성돼 있다.

### ◆총기멜빵 단순히 어깨에 매는 수단 아냐

현대전에 개인화기 멜빵은 단순히 총을 매는 끈이 아니라 전투활동성을 돋는 보조적 장비로 평가받는다. 때문에 전투파병이 많은 외국군의 경우 개인화기 사

용의 편리성을 돋는 다양한 개인화기 멜빵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육군이 도입했다고 밝힌 ‘3점식’은 2000년대 초반 이후 다양하고 복잡해진 방탄복 등 개인방호 장비와 간섭 등을 이유로 현재는 도태되고 있다.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은 “총기 멜빵은 크게 1점식, 2점식, 3점식 그리고 가변식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면서 “3점식은 총열이 짧은 개인화기를 후대하기 쉽게 나온 총기부속 장비였기 때문에 총열이 긴 개인화기에는 장비, 또는 총기 조작간 간섭 등이 생겨 현재 미군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특수부대원들은 좌우수 전

환, 신속한 기동 등을 이유로 1점식 멜빵을 사용하고, 전투 및 진지작업 등을 병행해야 하는 일반보병의 경우 쿠션닝이나 멜빵 길이조정이 양호한 개량된 2점식을 사용하는 간이 일반적인 추세다.

그렇다면, 육군은 왜 전술적으로 제한이 따른다고 평가받는 3점식을 25만개나 구매했을까? 사용자와 장비 구매 및 도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장비에 대한 정확한 명칭과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장비에 대한 규제혁파 필요

양국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우리 군이 3점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멜빵을 임무에 맞게 가변형으로 변형할 수 있는 가변형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유사한 장비를 3점식으로 통용해 불렀다”면서 “사용자와 실무

자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잘못된 선택과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3점식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가려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사설상 수긍하면서도 “신형멜빵의 도입절차는 문제가 없었고, 일부 장병들에게 사용 정보 등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내용이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육군 부사관학교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신형 멜빵 1개 셀은 기존보다 500그램 무게워진 700그램으로, 행사 때에는 기존의 2점식 멜빵으로 교체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700그램은 5개 셀 묶음의 중량이었고, 행사시 번거롭게 2점식으로 교체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문형철 기자 captinm@